

보도시점 2025. 10. 1.(수) 16:00 배포 2025. 10. 1.(수) 13:00

구윤철 부총리, 삼성 청년 SW·AI 아카데미(SSAFY*) 방문, AI 한글화 본격 추진

- SSAFY에서 교육생들을 만나 취업준비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마련 약속
- AI대전환·초혁신경제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AI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충분한 AI 활용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AI 한글화 프로젝트」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 준비

* Samsung SW·AI Academy For Youth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일(수) 삼성 청년 SW·AI 아카데미(이하 'SSAFY')를 방문하여 교육생·강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청년세대의 도전과 고민,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된 '전국민 AI 한글화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올해부터 AI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SSAFY를 방문하여 AI 직업훈련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완표·박승희 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참석하였다.

먼저, 구 부총리는 SSAFY 수료생이 수행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경계선 지능인 생활 도우미 서비스인 '토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AI혁신 사례”라며 “이러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AI 기술과 접목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I 기술을 활용하여 경계선 지능인 대상 일정 관리, 돌발상황 대처, 금융·소비 관리 및 금융 피해 방지 등 지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구 부총리는 “AI·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AI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AI를 한글처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한글화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내년 초부터 바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언급하였다.

특히 “최고 수준의 AI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탑티어(Top-tier) AI 융합 과정을 신설하고, 군장병 대상 AI 교육도 군복무 기간 동안 취업준비가 가능한 수준까지 강화하겠다.” 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SSAFY와 같은 역량 있는 AI 인재양성 기관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고, 삼성글로벌리서치 김완표 사장은 “SSAFY가 글로벌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혁신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화답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주성 (044-215-8530)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bbakko00@korea.kr)

